

신안 가거도에 '송년 우체통'



“근심·걱정·절망·좌절 ... 힘든 사연 편지에 실어보내세요”

한반도 최서남단인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에 '송년 우체통'이 설치됐다. <사진> 근심·걱정·절망·좌절 등 어렵고 힘든 모든 사연을 담아 연말 바닷속으로 지는 해와 함께 떠나보내자는 의미에서 신안군이 송년의 장소로 알려진 가거도에 대형 우체통을 두기로 한 것이다. 군은 9일 “가거도를 찾는 모든 이들이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체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집배원은 매일 편지와 엽서를 거둬가지만, 배달은 1년에 한번, 연말에만 가능하다. 군은 아름다운 가거도 8경, 신안 출신인 한국 추상화의 대가 수화 김환기(1913~1974) 화백의 작품 등을 표지로 한 10여 종류의 우편엽서를 제작해



가거도 8경 담은 우편엽서
여행객·우체국 등에 비치
집배원 매일 거둬 가지만
배달은 연말에 딱 한 번

방문객들이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엽서는 가거도출장소, 가거도우체국, 쾌속여행객에 비치된다.

바다새 번식지인 구굴도(천연기념물)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등산로 입구 섬등반도에 세워진 이 우체통은 가로 1.49m, 세로

0.88m, 높이 3.12m 규모로, 예산 7600만원이 투입됐다. 바다제비를 형상화한 이 우체통은 키 작은 어린이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단부에도 함을 만들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병소로 부상하고 있는 가거도에 우체통을 놓은 것은 물론 생태탐방로 정비, 조형물이나 안내표지판 설치 등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 500여 명이 사는 가거도는 우리나라 맨 서쪽 섬으로 '가히 사람이 살 수 있다'해서 가거도(可居島)로 이름이 붙여졌다. 목포항에서 쾌속선으로 흑산도, 홍도를 거쳐 4시간이 소요되며 연간 4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lee@

명량대첩축제 한달 앞두고 8월 30일 열린다

김 채묘시기와 중복돼 어선 동원 등 어려움 해전과 함께 민초들 육상 전투장면도 재연키로

올해 명량대첩축제 개최 시기와 내음이 크게 달라진다. 9월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0월 초중순에 열렸던 명량대첩축제를 올해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열기로 했다. 그동안 명량축제는 해남 우수영과 진도 녹진 등 울돌목 일원에서 명량대첩일인 음력 9월 16일 전후로 열렸으나 김 채묘시기와 중복돼 어선 동원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해전 재현 행사일을 주말과 휴일에서 금요일과 토요일로 바꿨으며, 민초(民草)들의

육상 전투장면 재현도 병행하기로 했다. 수군재건갤러리에 참여했던 지자체는 7개 시군에서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불꽃놀이, 메밀꽃밭 개장 등 여름철 야간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하기로 했다. 울돌목 해상 퍼레이드를 강화하고 화오리 물살 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했다. 전남도는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명량대첩축제 기념사업회 이사회 보고를 거쳐 8월까지 축제 상황실 운영, 참여기관 협력사업 협의 등을 마칠 계획이다. 13억원을 들여 '진군의 기상, 울돌목의 함성'을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해전 재연, 만가행렬, 초요기를 올려라, 약포호남입성식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목포시, 안전총괄 전담부서 신설

전남도도 행정지원국→안전행정국으로 변경

목포시가 전국 최초로 안전총괄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전남도와 각 시·군도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안전총괄부서를 신설하거나 기존 실국의 명칭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목포시에 따르면 기존 9국 65과 175담당이었던 조직을 9국 65과 181담당으로 6개 담당을 늘리는 개편안이 제307회 시의회 임시회에 안전상정돼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행정복지국을 안전행정복지국으로, 재난관리과를 안전행정과로 변경하고, 안전행정과는 생활안전담당을 신설했다. 안전총괄부서 신설 사례는 전국 최초다. 신설되는 안전행정과는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종합적·체계적 안전수준 진단·분석,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맡게 된다. 또 사회적 재난 대응 및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불량식품 등 4대 안전을 위한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전남도 역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안전을 전면에 내세운 점을 고려해 현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 안전 부문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뽕뽕이 흩어진 안전 관련 부서의 통합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서, 산단 업무는 경제산업국, 재난안전사고는 건설방재국, 구조구급과 방호예방은 소방본부, 불량식품은 식품안전과로 나뉘어져 제각각 업무를 추진해왔다. 안전행정국 산하에는 식품원산지 단속과 청소년 위생보호 등 민생 업무를 강화할 안전총괄과와 안전총괄계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예상됐던 창조과학국 신설은 여전히 고민중이다. 전남도는 당초 6월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관련 지침 전달이 미뤄지면서 이르면 7월 중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목포 삼학도에 키누 타러 오세요” 목포 삼학도 수로에 설치된 키누 체험장이 지난 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1.2km에 40여분 코스로 요트는 2인 기준으로 성인 2만원, 청소년 1만4000원이다. <목포시 제공>

전북

전북대어린이병원 내일 개원

신생아중환자실·언어치료실 등 최첨단 시설 전북지역 어린이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 기대

전북지역 소아청소년 치료의 중심이 될 전북대어린이병원이 개원한다. 전북대학교병원 9일 “오는 11일 전북대어린이병원이 개원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병원은 2007년 8월 보건복지

부의 어린이병원 설치 지원사업으로 첫 삽을 뜬 뒤 490억원을 들여 지난해 말 준공됐다. 총 면적 1만2000㎡에 신생아중환자실과 중환자실, 소아입원실, 심초음파실, 언어치료실 등을 갖춘 최첨단

단 의료시설이다. 또 어린이 친화적인 실내장식과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맞춰 의료시스템을 갖췄다. 진료과목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외과, 소아재

활의학과, 소아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아토피·알레르기클리닉, 미숙아클리닉, 소아심장클리닉, 혈액종양클리닉 등이 있다. 이대원 전북대어린이병원장은 “어린이병원은 수가가 낮고 의료인력이

단신

남원 인월시장 14억 투입 시설 현대화 추진

남원시가 인월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4억원을 들여 시설 현대화와 문화이벤트, 주말장터 운영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13억원의 예산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지난 4월13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주말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말 장터에서는 먹을

거리 코너, 농축산물 판매, 다문화가정 토속 음식 코너, 할머니 장터 등을 운영하고 산나물, 약초, 흑돼지, 과일 등의 농특산물이 전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장날이 겹치는 토요일에는 각설이, 가수초청, 밴드공연 등 문화이벤트 행사도 함께 열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군산해경 '한국해양범죄수사학회' 설립

국내 최초, 9월 창립 목표

해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관련된 학문 분야 간 교류 확대와 관계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일 군산해양경찰서에서 '한국해양범죄수사학회(가칭)'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국내에서 처음 발족하는 한국해양범죄수사학회는 오는 9월 창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9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발기인 대회에는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와 해양경찰 등 26명이 참여해 순천향대학교 심호진 교수(법학)를 회장으로 의결했다. 해양경찰과 대학, 경찰수사연수원 등 전문가 종사자들이 뜻

을 모아 국내에서 처음 발족하는 한국해양범죄수사학회는 해양범죄 수사 정보 공유와 해양범죄 관련 학회지 발간, 국내 유수의 다른 학회와의 공동 연구 등을 통해 해양수사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게 된다. 김일평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관계 분야 전문가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해양범죄 수사의 과학화를 위해 한국해양범죄수사학회를 창립하기로 했다”며 “해양범죄에 대한 지식 교류와 공유를 통해 학계와 수사 기관의 상호 발전, 조사와 수사 기법의 향상 등이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nogusu@



부안 노인들의 기체조

부안군보건소가 지난 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2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90명의 노인들이 기체조를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풍예방교실, 고관절 관리교실, 물리요법실 등 3가지로 구성돼 15일까지 계속된다. /부안=정재용기자 jyo0681@

순창군, 복분자 제조작업 등 농촌일손돕기나서

순창군이 농촌인력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로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불철 농촌일손 돕기를 중점 추진한다. 지난 4일 농정과 직원들이 복분자의 암 투병 농가 복분자 제조작업 일

손 돕기를 시작으로 종합행정담당실 과원소, 읍면 공무원 700여명이 복분자와 매실, 블루베리 수확과 파수 봉지 싸우기 등 농촌일손 돕기에 나설 방침이다.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서 농정과나 읍면사무소로 신청을 하면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주시,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14일까지 연장

전주시는 9일 “농작물재해보험 벼 품목의 가입기간을 모내기 등 영농일정을 고려해 오는 14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벼 품목의 가입 시기가 영농철과 겹치고 모내기 이전에 완료돼 벼 재배면적을 확정하지 못한 농가들이 적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전주시

는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영농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토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nogusu@

‘꽃게 금어기’ 21일~8월20일 불법 남획 단속

전북도는 9일 “올해 꽃게 포획을 금지하는 금어기가 오는 21일부터 8월20일까지로 일원화됐으며 이 기간에 불법 남획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온난화로 인한 서식환경 변화와 지역별 금어기 차이로 말미암은 불법조업 다름 등을 막기 위해 그간 이원화

돼 있던 금어기가 올해부터는 서해 5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6월21~8월20일로 일원화됐다. 도는 새롭게 바뀐 금어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지도에 주력하는 한편 금어기에 어미 꽃게의 보호를 위한 강력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전주=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한빛원전 안전 토론회 오늘 고창읍사무소서 열려

원전부품 성격서 위조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제어봉 안내관 균열로 가동이 정지된 한빛원전력발전소 3호기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해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은 9일 “10일 오후 2시 전북 고창읍사무소에서 ‘영광원전 3호기 현황과 고창·전북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불거진 한빛원전의 품질검증서 위조와 제어봉 안내관 균열

등으로 불안감이 커진 인근 고창·부안·정읍지역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할 것인지 모색하는 자리다. 박맹수(원광대) 교수의 사회로 ▲한빛원전 현황과 고창·전북의 과제(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한빛원전이 고창과 전북에 미치는 영향, 피해 예측, 방사능 방재대책(유우중 전북소방방재청 소방안전과장)이 발표된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